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빈집 특별법이 시급하다

농촌에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4.99%를 차지한다.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광주·전남에 산재해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 상당수가 개발 기대 심리, 복잡한 소유 관계, 무관심 등의 이유로 빈집을 방치하면서 흉가로 변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 지역 빈집은 1만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1003호(55.8%), 활용 가능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비어있는 주택이 1635호가 있다. 광주·전남의 빈집은 2만1362호로, 전국(6만5203호)의 32.8%에 달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빈집의 63%가 철거 대상으로 빈집의 불량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농촌의 빈집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높은 고령인구 비율 등을 감안하면 더 추세는 더 가속될 것 같다. 돌보는 사람 없이 장기간 버려진 주택들은 수십 년 전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가로 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까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5년 뒤인 2037년이면 5.6%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와 1인 가구, 빈집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와 활용에 반대하면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고, 긴급한 경우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들은 민원, 분쟁 등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의 빈집 1만9727호 가운데 지자체의 철거·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했다. 85.6%에 달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한 것이다.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 등 각종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 무너진 담장, 부서진 대문, 잡풀이 우거진 마당 등 오래 방치된 집들은 마을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빈집은 골목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붕괴 등 각종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빈집 철거 절차를 밟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위생·경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마치더라도 소유자가 반발해 분쟁이 일어나는 등 기간이 더 걸리거나 아예 철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선 정부가 각 지자체별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해 빈집과 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사례들도 하나 둘 씩 생기고 있다. 이같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빈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각 시군도 빈집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의 폐허가 된 빈집을 방치해 경관이 훼손되면 귀농 귀촌은커녕 관광객조차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곳으로 변한다. 농어촌에 빈집이 한 곳 생기면 주변에 또 빈집이 생기는 '빈집 전염현상'도 발생한다. 전남도와 시군 차원의 빈집 관리 조례 제정으로 빈집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빈집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특정공가(特定空家)'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공가 소유주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 방치하면 행정명령을 내려 처리한다. 미국은 여러 주 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빈집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2년 이상 비어 있거나 안전조치가 없으면 빈집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일부 주에서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주에게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물린다. 영국은 아예 지방세로 '빈집세'를 둬서 중과한다.

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법 제정과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보다 확실한 공적 개입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청년칼럼

오 순 지
작당모의 대표

환경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자

고래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접한 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자연이 좋아 주말마다 캠핑을 시작했다. 하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더욱이 2박3일 캠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분출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쓰레기의 내용물을 보면서 소비패턴을 반성하게 됐다.

제로웨이스트의 가장 큰 적은 '편리'이다. 편해서 플라스틱 그릇과 종이컵을 쓰고, 귀찮아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욕심'이다.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과도한 욕심에 많은 양의 음식물과 매 끼니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되돌아보게 됐다.

먼저 좋아하는 캠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 일회용품부터 줄였다. 또 종량제 봉투의 크기를 절반으로 제한했고, 예전에 구입해 놓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했다. 물티슈가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알고 행주를 선호한데 이어 요리는 기름기가 적은 채식 위주로 진행했다.

잘 모를 때는 동물의 권리를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을 갖고 보니 환경을 위해서도 비건이 필수적이었다. 육류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 드는 자원을 아끼기 위해선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비건 지향적인 식사를 하는 게 더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고기를 좋아하는 한 지인도 일주일에 한 번 페스코(달걀과 생선까지 먹는 채식)를 실천하는 걸 접하면서 필자도 10개월이 넘도록 일주일에 한 번 동참하고 있다.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금류까지 먹는 폴로도 괜찮다고 생각된다. 소, 돼지 소비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EU에서는 고기 없는 월요일을 2009년부터 시작했다는데 필자는 2022년이 돼서야 이를 실천하게 된 셈이다. 욕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캠핑에서 완벽하게 비워진 아이스박스를 들고 집에 돌아올 때면 정말 뿌듯하다. 처음엔 캠핑이었지만 곧 내 삶에도 스며들어 음식에서 소비재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옷을 살 때도 이 옷이 과연 필요할까 생각해 본다. 옷이 싸고 많다고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염색에 드는 많은 물과 새옷에 가깝지만 싫증 나서 버려진 옷들은 결국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쓰레기 산을 만든다. 있는 물건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 생리컵과 면 생리대는 가장 만족하는 제품이다. 제로웨이스트를 위해 시작했는데 쓰레기도 줄고 몸도 편하다. 일회용 생리대의 흡수제가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다. 코팅해 만든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담아 마시면 20분 만에 미세플라스틱 5조개가 만들어지는데 환경에도 우리 몸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 몸과 제로웨이스트는 맞닿아 있다.

필자가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고 변한 것처럼 내 주변으로 이어지고, 이 글을 읽은 모든 이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처음 텀블러 사용부터 시작해 지금은 샐러드 용기를 챙겨가서 포장해오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한 제로웨이스트를 목표 해 도중에 지쳐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되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카페 내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면 그 카페는 '안 가야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 둘 실천해 보자.

독자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올 여름 기상청에서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여름철 7-9월에 발생한 사고가 1천여건으로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사고 중 익사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수칙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필수.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 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에 물놀이 전에 가벼운 유산소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입수 시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물을 적셔가며 물에 적응시켜야 한다.

식사 후에 소화를 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수영을 하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위경련 위험이 있다. 이에 식사를 한 후에는 2시간 정도 휴식,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를 시킨 후 물에 들어가도록 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선 안된다.

물놀이를 하게 되면 장시간 강렬한 햇빛에 노출이 돼 일사병 또는 열사병의 위험이 있다.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반드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중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하는데, 방심이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다. 수영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구조에 숙달된 사람이라도 직접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무모한 구조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잡혀 동반 익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위에 소리를 쳐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 후 반드시 구조자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줄, 막대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인명구조용 튜브를 던져 구조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김정현·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남도 소울푸드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등재 정당성

신안 흑산도는 홍어 집산지로, 나주 영산포는 삭힌(숙성) 홍어의 본고장이다. 조선 중종 25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말 남해안 지역 왜구의 노략질로 흑산도 인근 영산도 어민들이 영산포로 피난을 오게 됐다. 당시에 뱃길로 보름 정도 걸려 부패가 심했는데 항아리 속에서 폭 삭은 홍어 만큼은 뒤탈이 없는 데다 알싸한 풍미가 있었다.

홍어를 매개로 남다른 인연이 있는 나주시와 신안군은 역사적 전통성과 독창적인 식문화 계승에 앞장서 왔다. 나주는 19회째, 신안은 9회째 각각 축제를 개최하며 남도를 넘어 전국으로 음식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시·군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화를 추진한다.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유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홍어의 역사적·학술적 조사 및 자료 공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등에 협력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유구한 세월 계승해온 식문화를 지구촌으로 확산하는 출발선에 섰다. 의미가 크다. 홍어는 가장 향토적이면서도 지역 문화를 잘 대변하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로, 수심이 깊고 뻘이 많아 알을 낳고 서식하기에 좋은 흑산도 해상에서 자란 것을 최고로 친다.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우며 유일하게 삭혀서 먹는 생선이다. 특히 삶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얹고 막걸리에 곁들이는 삼합은 별미 중의 별미다.

'코가 뻥 뚫리는' 자타공인 일품의 맛으로, 귀한 몸값을 자랑한다. '홍어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다'고 할 정도로 관혼상제에 결코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홍어잡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유·무형 자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도 지정됐다. 영산포에서는 예부터 항아리에 돌을 깔고 재우는데 중간중간 볏짚과 솔잎을 번갈아 넣고 밀봉해 보관하는 특별한 기술이 이어지고 있다.

홍어 식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후대에 계속 전승돼야 한다. 남도 문화의 본류를 알리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전라도의 정체성이 깃든 '소울푸드'가 세계인의 밥상에 조만간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재기 조짐까지 日 오염수 방류 불안감 커진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지역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먹거리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알프스'로 불리는 첨단시설을 통해 철저하게 희석시킨다고 해도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는 신뢰할 자료가 없다. 전남도가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지만 이미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어민들은 업종 전환도 고민하고 있다.

전남 대표 천일염은 사재기·비축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격 생산이 시작된 지난 4월 초 1만3천-1만4천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급등세다. 도착 운반비, 상하차 비용을 포함하면 20㎏ 한 포대에 2만5천원을 웃돈다. 2011년 원전 사고 발생 당시에도 3만5천원까지 오른 적이 있는 만큼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어가의 사정은 심각하다. 직격탄을 맞았다. 완도산 전복은 지난해 1㎏당 4만2천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들어 2만7천원 수준까지 35% 가량 급락했다. 바다로 오염수가 나오면 가격이 요동칠 것이어서 유통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진행형이다. 전남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방류 대응 특별법과 수산물 사전 수매 확대, 원산지표시 강화, 소비 위축 손실 보상 계획 수립, 해역 분석자료 방송 자막 제공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곳곳에선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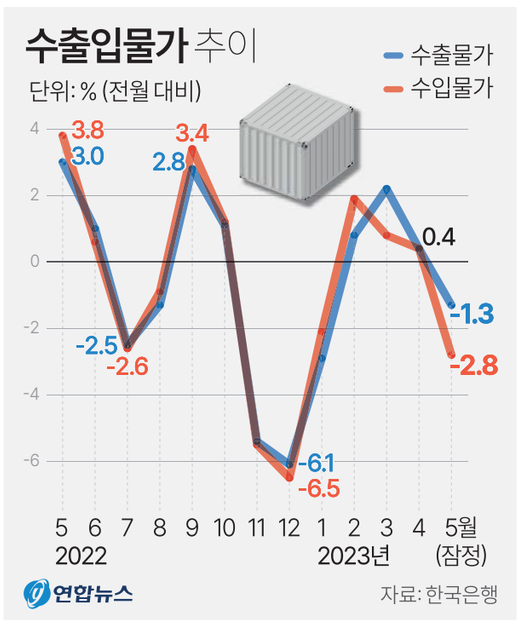
정부가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은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어민은 생계의 터전을 바다를 떠나려 한다. 예삿일이 아니다. 이르면 7월초 방류가 이뤄지면 대재앙의 시작이다. 사전에 비축 물량을 푼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대로면 다 죽는다. 줄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산물 시장은 혼란스럽다. 전남은 초비상이다. 당장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소화해야 하겠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픽 뉴스

국제 유가 하락에 5월 수출입 물가 넉 달 만에 내려

지난달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수입 제품 모두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넉 달 만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16.66으로 4월(118.21)보다 1.3%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전월 대비 석 달 연속 올랐으나, 넉 달 만에 하락했다. 품목별로 4월과 비교해 석탄·석유제품(-7.7%), 화학제품(-2.4%), 제1차금속제품(-2.0%)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농림수산품(1.3%), 컴퓨터·전자·광학기기(0.8%) 등은 상승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28.21원으로 전월 대비 0.6% 올랐다.



환율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8% 하락했다. 5월 수입물가지수는 135.54로 4월(139.45)보다 2.8%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넉 달 만에 내렸다. 용도별로 원재료는 광산품(-6.8%)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6.3% 하락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